



여의도연구원

국민행복을 디자인합니다

Vol.2016-04

여연포커스

YDI FOCUS

발행일 2016년 5월 19일 (목)

정권 재창출인가, 정권 교체주기인가 - 2016 美 대통령 후보경선의 현황과 특징 -

- 목 차 -

要 旨	i
I. 2016년 미국 대선 의미	1
II. 양당의 후보경선과정: 현황과 특징	2
III. 쟁점 이슈와 유권자 인식: 높은 당파적 차이	7
IV. 본선 경쟁과 공화당의 딜레마	13
V. 한국에의 시사점	15

정권 재창출인가, 정권 교체주기인가

- 2016 美 대통령 후보경선의 현황과 특징 -

작 성 유 성 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담 당 유 성 현 (여의도연구원 연구원)

2016 미국 대통령 선거현황 및 정책이슈 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총 6차에 걸쳐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본 1차 보고서는 미국 대선 양당의 후보 경선 현황을 분석하고 승패를 예측하는 글로,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여의도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의도연구원

《 要 旨 》

- 2016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현재까지 민주, 공화 양당의 후보경선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쟁점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통해 본선에서의 승부를 전망해 보려 함
-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업적을 계승함과 동시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며,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문제점을 제기 하는 동시에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과 비전을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임
 - 최근 오바마의 업무수행지지율과 성과들을 볼 때 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무당파 비율이 꾸준히 4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정권 교체주기가 8.6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승패를 장담하긴 어려움
- 현재까지의 후보경선결과로 보면, 2016년 대선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대결로 굳어지고 있음
 - 경제적 양극화 해결을 내세우며 등장한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의 돌풍에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수세에 몰린 듯 보였으나, 결국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음. 유력후보가 새로운 후보의 등장에 고전하다가 우세를 회복 하는 이러한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반복되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 공화당 후보경선은 썬트 부시와 마르코 루비오가 주도할 것이라는 애초의 예상과는 달리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압도적인 선두를 유지하면서 거의 공화당 후보로서 결정된 상황임
 -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유권자들 특히, 공화당의 유권자들이 제도정치권과 공화당 주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극에 달해 있음을 알려줌
-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5년 말의 상황에서 여론의 추이를 보면 민주, 공화 양당의 지지자들은 그 성격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전체적으로 지지유권자 내부의 균열은 민주당에 비해 공화당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슈에 대한 공화당 내부의 입장 차이가 더 분명

하게 갈려 있음을 보여줌. 결국 이러한 내부의 분열은 현재 공화당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내부의 단합을 견인해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를 알려주고 있음

- 민주당의 경우 내부적 의견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를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 클린턴 후보가 본선에서 펼친 선거전략이 오바마 행정부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을 것임을 예측케 함
- 공화당 후보로 확실시되는 트럼프에 비해 민주당의 클린턴은 지한파이기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보다 수월하고 예측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한국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기를 이미 경험했고, 힐러리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장관으로 오래 봉직했다는 점에서 이미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반면에, 공화당의 트럼프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음
 - 오히려 트럼프는 후보경선과정에서 한국에 대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면서 안보에 있어서는 무임승차하는 국가로 매우 부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음
-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누가 되든 간에 현재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ignorance) 정책에 대한 변화가 어떤 형태로든 초래 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양당 후보 중 누가 되더라도 한국에 대한 압박이 지금 보다 더 심해지리라 생각됨. 미국의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보다 강경한 무역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임
- 결국 한국의 입장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문제, 그리고 주한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한국 분담금 증대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무역정책에 대한 압박 역시 이전보다 더 심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I. 2016년 미국 대선 의미

□ 오바마의 높은 지지율, 민주당 재집권 가능성 높아져

- 2016년 미국 대선은 8년 임기를 마친 현직 대통령이 출마하지 못하고 민주, 공화 양당 모두 새로운 후보들이 경쟁하는 구도임.
- 민주당으로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업적을 계승함과 동시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며,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동시에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과 비전을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임
 - 40% 후반을 기록하고 있는 최근 오바마의 업무수행지지율과 오바마 행정부 2기의 성과들을 볼 때 민주당 후보들은 전적으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 성과에 더해 자신만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취할 것임
 - 동일한 선거구도를 가졌던 최근의 대선양상을 볼 때 최근 오바마 업무수행 지지율(53%, gallup poll 3월말 기준)은 재집권 성공사례에 보다 가까움. 8년차 1분기에 레이건의 지지율은 50%, 클린턴이 62%를 기록했던 반면, 부시(G. W. Bush)는 단지 28%의 지지율을 보이는데 그쳤음
-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이라는 측면에서 지난 1년간 유권자의 비중은 공화당은 25% 안팎, 민주당은 30% 초반을 보여 민주당이 우세한 모습이 나타남. 그러나 무당파 비율도 꾸준히 40% 안팎을 기록하고 있어 승패를 장담하기는 어려움

□ 정권 교체주기 8.6년, 2016년에도 적용될까

- 장기적인 역사 추세를 보면 한 정당이 행정부 권력을 갖고 있었던 평균 연수는 8.6년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공화당에 아주 비관적인 구도는 아님. 2차 대전 이후 미국 대선에서 한 정당이 세 번의 대선을 연속으로 이긴 경우는 레이건을 계승한 부시(G. H. W. Bush)가 당선된 1988년 선거가 유일함
- 결국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당의 입장에서는 현 시점 유권자들의 관심 사안에 최적화된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술적인 선택이 될 것임
- 이 글에선 현재까지 민주, 공화 양당의 후보경선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쟁점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통해 본선에서의 승부를 전망해 보려 함

Ⅱ. 양당의 후보경선과정: 현황과 특징

- 현재까지의 후보경선결과로 보면, 2016년 대선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대결로 굳어지고 있음
 - 5월 2일 있었던 인디애나 주의 경선까지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는 2,208명의 대의원수를 확보하여 후보결정에 필요한 2,383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1,053명의 대의원수를 확보하여 과반수인 1,237명을 가시권에 두고 있음(확보 대의원수는 New York Times 추산 기준)
 - 또한 공화당의 경우 인디애나 주의 패배 직후 크루즈(Ted Cruz) 후보가 경선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 역시 사라진 상황임
- 후보윤곽이 드러난 현재까지 트럼프와의 가상대결에서 클린턴이 압도적인 우세를 지켜왔지만 최근 관세가 박빙으로 나타난 조사들이 나오면서 본선에서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1. 민주당: 샌더스 발 열풍, 이변은 없었다

- 민주당의 경우 유력후보인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경제적 양극화의 해결을 전면에 내세우며 등장한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의 돌풍에 수세에 몰린 듯 보였으나, 3월 1일 슈퍼화요일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음
 - 이후 대의원의 수가 많이 할당되어 있는 4월 19일 뉴욕 주와 26일 펜실베이니아 주 등에서의 승리로 민주당 후보경선에서 클린턴이 최종 승리자가 될 것이 확실시됨
- 유력후보가 새로운 후보의 등장에 고전하다가 우세를 회복하는 이러한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반복되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 유사한 조건에서 치러진 2000년 민주당 후보경선에서도 유력후보였던 고어 부통령이 후발주자였던 브래들리 연방 상원의원과 박빙의 경쟁을 보이다 3월 7일 슈퍼화요일에서 승기를 잡아 결국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바 있으며, 이전의 선거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반복적으로 나타났음

- 다만 이번 민주당 후보경선에서 나타난 새로운 모습이 있다면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해 경제적 양극화의 폐해가 두드러진 상황에서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이를 효과적으로 캠페인 이슈로 부각시켰고 선두주자인 클린턴 후보와 유권자들에게 이 이슈의 중요성을 크게 각인시켰다는 것임

2. 공화당: 트럼프 충격은 계속된다

- 공화당 후보경선은 썬 부시와 마르코 루비오가 주도할 것이라는 애초의 예상과는 달리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압도적인 선두를 유지하면서 거의 공화당 후보로서 결정된 상황임
- 정치적 경력이 전무할 뿐 아니라 공화당 주류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후보자 트럼프, 그리고 티파티 세력이라 일컬어지는 보수적인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마지막까지 대항마로서 나섰던 크루즈 상원의원 역시 공화당 주류정치인들에 대한 일상적인 비판으로 아웃사이드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점은 공화당 후보경선 과정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임
 - 특히 파격적인 행동과 극단적인 선동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의 돌풍은 공화당 내부의 결집과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중요시해온 기존 선거 캠페인의 양상을 여실히 무너뜨리는 것으로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음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후보지지양상을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트럼프에 대한 지지층은 거의 전 영역에 걸쳐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남성,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 저소득층, 중도적 성향, 그리고 종교적 신념이 낮은 공화당 지지자들에게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
 - 한편 공화당 후보 지지양상을 앞서 살펴본 변화와 경륜에 관한 유권자 인식과 결부시켜 살펴보면 트럼프는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에게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경륜에 있어서는 여러 후보가 각축하는 형국에서 카슨이 상대적인 우위를 보였던 바 있음

GOP Voters' Views of 'New Ideas,' Experience and the 2016 Campaign

Possible Republican primary voters who say it is more important for a candidate to have ...

<i>First choice for the Republican nomination for president? (OPEN END)</i>	All R/RL possible primary voters	Experience and proven record (29%)	New ideas and diff approach (66%)
	%	%	%
Trump	25	8	33
Carson	16	13	18
Rubio	8	6	9
Fiorina	8	8	7
Cruz	6	9	5
Bush	4	9	2
Huckabee	2	4	1
Paul	2	2	2
Other*	4	6	3
Don't know	<u>25</u>	<u>34</u>	<u>19</u>
	100	100	100

Survey conducted Sept. 22-27, 2015. Candidate preference question is open-ended question (Q36). Based on Republican and Republican leaning registered voters who say they may vote in the Republican primary or caucus in their state. *Other includes candidates who received less than 2% of overall support; see topline for more detail.

PEW RESEARCH CENTER

□ 공화당 주류에 대한 분노, 트럼프 돌풍 키워

-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유권자들 특히, 공화당의 유권자들이 제도정치권과 공화당 주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극에 달해 있음을 알려줌
 - 금융 위기 이후 더디게 회복되는 경제상황과 불평등의 심화, 보다 구체적으로 이는 불법이민자 문제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행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한 공화당 주류에 대한 실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됨
- 또한 대중매체의 보도에서 간과되고 있지만 트럼프가 세금과 최저임금, 그리고 노동조합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역시 백인 저소득 계층들의 지지를 얻게 되는 또다른 이유임
 - 이는 과거 공화당이 갖고 있는 정책적 성향 특히, 경제적 보수주의에 기반한 작은 정부의 지향이 적어도 주류 사회에 속해 있지 않은 백인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알려줌

- 더불어 트럼프의 과격하지만 간명한 입장 표명이 보수적인 대중매체들에 의해 증폭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이유임
 - 정치적 양극화가 극명해진 상황에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에 민주당과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반감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기보다는 감정적인 측면에서 증오와 경멸 등의 혐오감으로 변질되기 쉬운데, 보수적인 대중매체들은 이러한 경향성을 더욱 증폭하고 있음

- 트럼프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또 다른 이유는 공화당 경선에 임했던 다른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어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임
 - 애초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대두되었던 잭 부시는 전임 부시(G. W. Bush) 대통령의 부정적인 유산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다가 경선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장점을 부각시키는데 실패하였음
 - 크루즈 연방상원의원의 경우에도 공화당 주류정치인들을 비판하면서 기득권층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고소득층 증세에 반대함으로써 서민층을 위한 정책 제시에는 한계를 보였음
 - 트럼프의 성공과 기타 후보들의 실패는 공화당 내부를 크게 나누고 있는 두 이슈인 이민문제와 부자증세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의 후보지지의향을 살펴보면 보다 분명하게 설명됨.
 - 트럼프는 이민문제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고 부자증세에 찬성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에게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바, 이들은 공화당 주류에 대한 실망과 반감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임

GOP Voters' Splits Over Immigration, Taxing Wealthy Is Reflected in Vote Priorities and Preferences

Possible Republican primary voters who ...

First choice for the Republican nomination for president? (OPEN END)	All R/RL possible primary voters	Likelihood of supporting a candidate who...					
		Wants to deport all immigrants who are in the country illegally			Wants to raise taxes on wealthy Americans		
		More likely (43%)	Less likely (29%)	Not a factor (24%)	More likely (31%)	Less likely (34%)	Not a factor (34%)
Trump	25	34	13	23	35	16	24
Carson	16	16	17	17	12	23	12
Rubio	8	5	10	9	5	9	9
Fiorina	8	8	5	11	6	7	10
Cruz	6	6	4	7	3	9	7
Bush	4	2	8	3	5	4	4
Huckabee	2	4	1	2	1	4	3
Paul	2	2	3	3	3	1	3
Other*	4	3	4	5	3	3	5
Don't know	25	20	36	19	27	24	2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Say ___ is "very important" to 2016 vote							
Immigration	66	84	44	59	-	-	-
Economy	89	-	-	-	96	87	83

Survey conducted Sept. 22-27, 2015. Candidate preference question is open-ended question (Q35). Based on Republican and Republican leaning registered voters who say they may vote in the Republican primary or caucus in their state. *Other includes candidates who received less than 2% of overall support; see topline for more detail.

PEW RESEARCH CENTER

- 이민문제와 부자증세가 서로 다른 차원의 쟁점이슈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후보지지의향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사실은 공화당 내부에서 정당의 정책적 성향을 구성하는 사회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보수주의의 각축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
- 다만 저소득, 저학력 백인 계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확실시되는 현재 상황에서 작은 정부와 시장의 자율성을 견지해 온 경제적 보수주의의 양상이 경제적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라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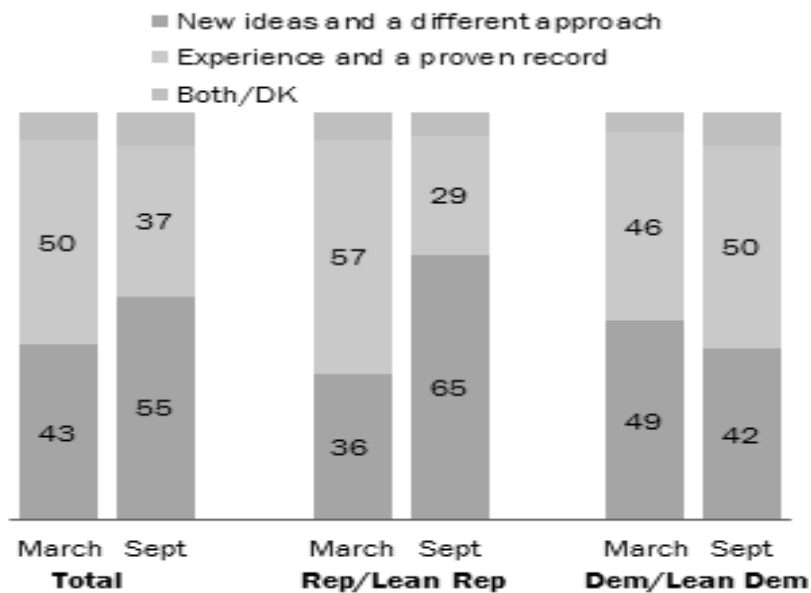
Ⅲ. 쟁점 이슈와 유권자 인식: 높은 당파적 차이

□ 변화를 희망하는 공화당 유권자들 갈수록 늘어

-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5년 말의 상황에서 여론의 추이를 보면 민주, 공화 양당의 지지자들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지난 9월에 진행된 대선 후보자의 자질 조사에서 변화와 경륜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유권자 비율이 각각 55%, 37%로 나타나고 있음
- 변화를 추구하는 유권자 비율이 6개월 이전의 43%에 비해 10% 이상 상승함

GOP Voters Now Prefer 'New Ideas' to Experience; Democrats Are Divided

% of voters saying it is more important for candidate to have...



Survey conducted Sept. 22-27, 2015. Based on registered vo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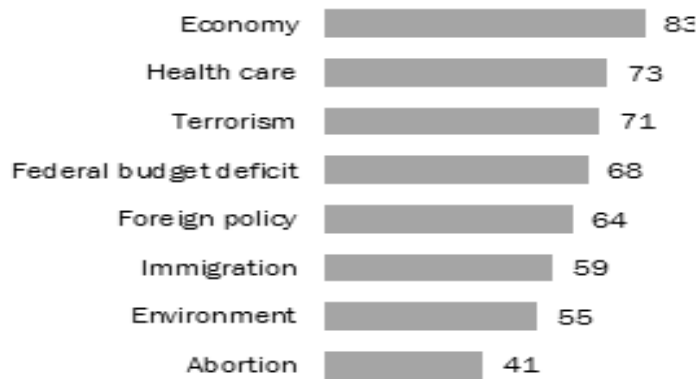
PEW RESEARCH CENTER

- 당파적으로 나누어보면 공화당 지지자들 중 '변화'를 중요시하는 비율이 65%에 달하는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새로움과 경륜에 쏠리는 비율이 각각 42%, 50%를 기록하고 있어 전체 유권자들의 응답변화가 대부분 공화당 지지자들의 변화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2016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다른 무엇보다도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그 다음으로 의료보험, 테러리즘, 연방재정적자, 외교정책, 이민, 환경, 낙태가 중요한 이슈로 꼽히고 있음

Economy Remains Top Campaign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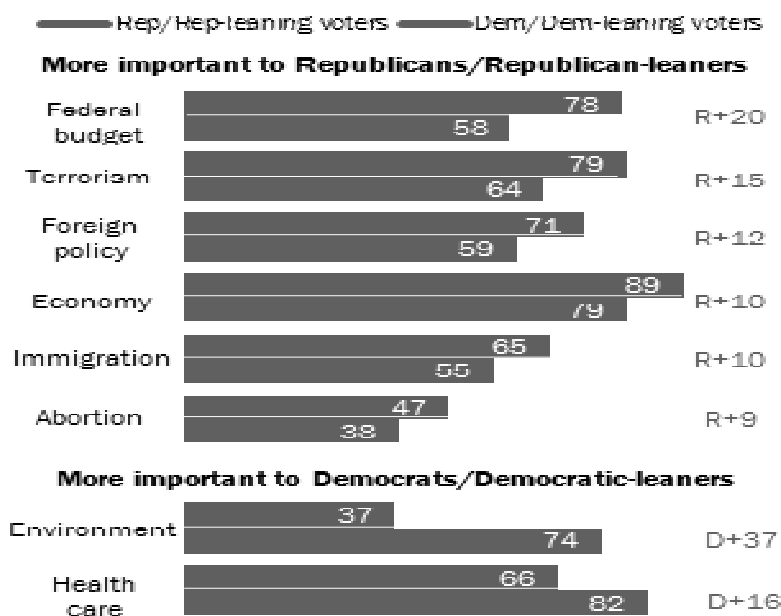
% of voters saying each will be "very important" to their vote for president in 2016...



Survey conducted Sept. 22-27, 2015. Based on registered voters.
PEW RESEARCH CENTER

Wide Partisan Gaps Over Importance of Environment, Deficit, Health Care

% saying each is "very important" to their vote in 2016...



Survey conducted Sept. 22-27, 2015. Based on registered voters.
PEW RESEARCH CENTER

□ 대선의 핵심 변수는 경제와 테러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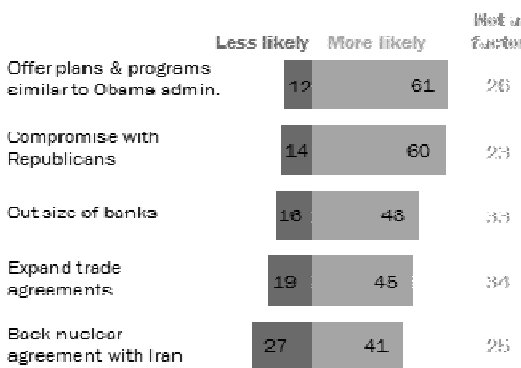
- 전체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순위에서 예년과 차이가 없었지만, 각 이슈에 대해 민주, 공화 양당의 정당일체자들의 이슈별 순위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당파적으로 큰 차이를 보임
- 민주당 정당일체자들이 꼽은 중요 이슈들이 의료보험, 경제, 환경, 테러리즘, 외교정책 등의 순서로 나타났던 반면, 공화당 정당일체자들은 경제, 테러리즘, 연방재정적자, 외교정책, 의료보험 등을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음
- 민주당 정당일체자들이 공화당 정당일체자들에 비해 의료보험과 환경 이슈를 특히 중요하게 인식하는 반면, 공화당 정당일체자들이 연방재정적자와 테러리즘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 함
- 양당 정당일체자들의 인식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난 이슈는 환경문제로 민주당의 경우 74%의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지만 공화당은 그 수치가 절반이 37%에 그쳤고 있음
 - 반면, 연방재정적자 이슈는 공화당 지지자 중 78%가 중요하다고 답한데 반해 민주당은 58%의 응답자만이 중요이슈로 꼽아 20%의 차이를 보임
- 이러한 당파적인 차이는 본선경쟁에서 클린턴과 트럼프가 스스로가 속한 정당의 지지자들을 결집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슈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줌
- 그러나 전체 유권자들에게서 경제와 테러리즘이 여전히 중요한 이슈라는 점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미국의 경제상황과 테러리즘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판세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민주, 공화 양당에 속해 있지 않은 무당파 유권자들의 표심이 대단히 중요한 미국 대선의 상황에서 선거 환경을 결정짓는데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경제와 테러리즘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두 후보의 역량과 상관없이 민주, 공화 중 어느 한 정당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한다는 점을 주목해야함

□ 지지유권자 내부 균열,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심각해

- 각 정당 지지자들은 후보의 정책적 입장에 따른 지지여부에 있어서도 큰 당파적 차이를 보였음
- 예비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공화당 정당일체자들은 이란과의 핵협상을 종결시키고,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에 연방정부의 지원을 중지하고, ISIS의 격퇴를 위해 지상군을 파견할 후보에게 높은 투표의향을 갖고 있음
 - 반면 민주당 정당일체자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지속하고, 공화당과 협상할 의향을 가진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 그 외에 이민에 관한 강경책을 두고 공화당 지지자들이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대 당과의 협상을 두고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 훨씬 더 강경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함

How Possible Democratic Primary Voters View Candidate Positions

Among possible Democratic primary voters, % who would be ___ to support a candidate who wants t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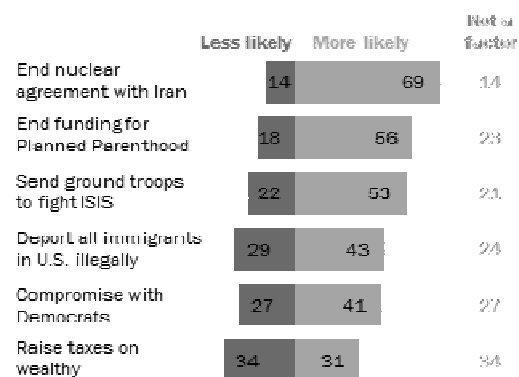


Survey conducted Sept. 22-27, 2015. Based on Democratic and Democratic-leaning registered voters who say they may vote in the Democratic primary or caucus in their state: (very/somewhat/not too likely to vote). N=587

PEW RESEARCH CENTER

How Possible Republican Primary Voters View Candidate Positions

Among possible Republican primary voters, % who would be ___ to support a candidate who wants to ...



Survey conducted Sept. 22-27, 2015. Based on Republican and Republican-leaning registered voters who say they may vote in the Republican primary or caucus in their state: (very/somewhat/not too likely to vote). N=496

PEW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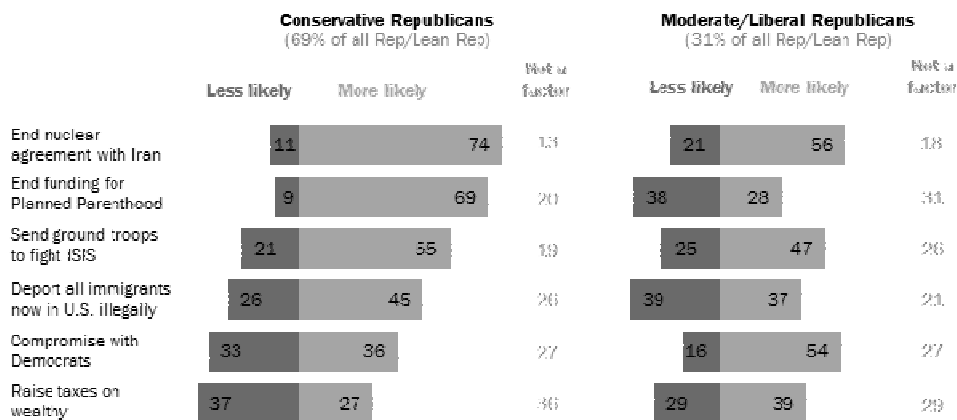
- 한편 후보입장과 지지의향과 관련하여 민주, 공화 양당 내부는 그 양상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
 - 공화당의 경우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연방지원 여부와 민주당과의 협상을 놓고 강경한 지지자들과 온건한 지지자들 간 커다란 차이가 나타난 반면,

민주당의 경우 금융권 개혁과 이란 핵협상을 두고 진보-온건 지지자들 간의 후보지지의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지유권자 내부의 균열은 민주당에 비해 공화당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슈에 대한 공화당 내부의 입장 차이가 더 분명하게 갈려 있음을 보여줌. 결국 이러한 내부의 분열은 현재 공화당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내부의 단합을 견인해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을 알려주고 있음

Wide Gaps Among Possible GOP Primary Voters in Views of Planned Parenthood Funding and Compromise With Democrats

Among possible Republican primary voters, % who would be ___ to support a candidate who wants t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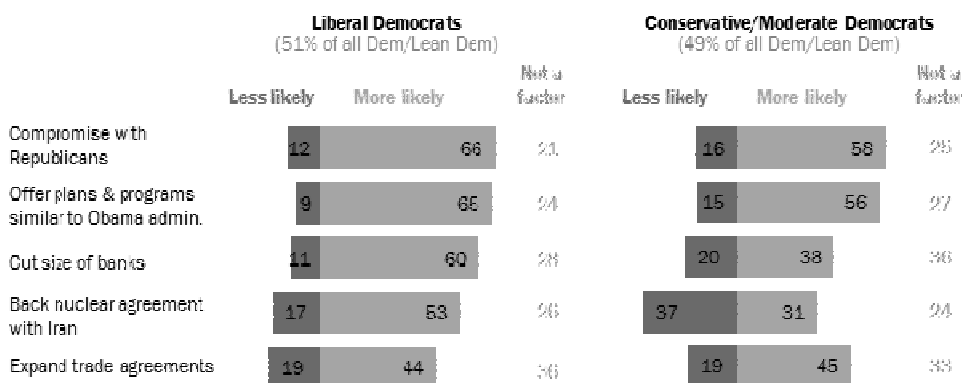


Survey conducted Sept. 22-27, 2015. Based on Republican and Republican-leaning registered voters who say they may vote in the Republican primary or caucus in their state (very/somewhat/not too likely to vote). Cons Rep/Lean Rep (N=336), Mod/Lib Rep/Lean Rep (N=318).

PEW RESEARCH CENTER

Democrats Ideologically Divided Over Candidate Support for Reducing Size of Large Banks, Iran Nuclear Agreement

Among possible Democratic primary voters, % who would be ___ to support a candidate who wants to ...



Survey conducted Sept. 22-27, 2015. Based on Democratic and Democratic-leaning registered voters who say they may vote in the Democratic primary or caucus in their state (very/somewhat/not too likely to vote). Lib Dem/Lean Dem (N=332), Cons/Mod Dem/Lean Dem (N=318).

PEW RESEARCH CENTER

□ 지지자 결집 여부가 본선 경쟁력 좌우할 것

- 전체적으로 쟁점이슈를 둘러싼 전체 유권자들의 인식 분포가 민주당의 입장에 치우쳐 있는 까닭에 민주당에 비해 공화당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또한 이슈에 대한 공화당 내부의 분열이 민주당에 비해 더 심화된 상황인데 이는 티파티 세력을 중심으로 한 강경한 보수주의자들이 여전히 공화당에 중요한 세력으로 남아 있음을 의미함
- 이와 같은 사실은 공화당의 분열되어 있는 내부 지지자들의 판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트럼프가 갖게 되는 본선경쟁력이 크게 요동칠 것임을 알려줌
 - 이러한 예상은 공화당 지지자들의 대다수가 당선가능성 보다는 쟁점이슈에 대한 후보의 입장과 자신의 입장을 고려해 투표에 임할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볼 때 더욱 현실성을 가짐
- 반면 민주당의 경우 내부적 의견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를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 클린턴 후보가 본선에서 펼친 선거전략이 오바마 행정부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을 것임을 예측케 함

Voters Prioritize Positions More Than Electability

% of voters who say it is more important to pick a candidate who...



Survey conducted September 22-27, 2015. Based on registered voters.

PEW RESEARCH CENTER

IV. 본선경쟁과 공화당의 딜레마

□ 공화당, 내부균열 극복 없이는 승리도 없다

- 지금까지의 판세는 선거구도의 측면에서 그리고 유권자 결집의 측면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 취약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결국 예비선거와 본선거를 구분하는 미국 선거제도의 특성상 트럼프는 히스패닉의 비호감을 극복하고 본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가 중요한 숙제가 될 것임
 - 그러나 이민문제에 대한 극단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트럼프가 이를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이는 최근 가상대결이 박빙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민주당의 클린턴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임을 시사함
- 공화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내부의 균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선거는 물론 향후 공화당의 장래에 큰 과제인데, 강경-온건세력의 균열과 사회적 보수-경제적 보수가 여전히 각축을 벌이고 있어 쉽지 않은 과제로 여겨짐
- 트럼프로 굳어진 현재의 상황에서 공화당은 일단 본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결집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나, 지금의 균열이 지속되고 지도부가 이를 극복해낼 방안을 찾지 못하고 계속 혼란을 겪는다면 공화당이 선거에서 패배를 피하기 어려울 것임
- 만일 공화당이 내부의 균열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공화당 지도부는 대통령선거와 의회선거에서의 전략을 분리하고 대선보다는 의회선거에 보다 집중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돌풍으로 나타난 미국의 위기

- 한편 트럼프 열풍으로 요약되는 현재까지의 상황은 미국이 국내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음

- 특히 그간 미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근본적 가치들 즉, 관용과 평등,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신념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바, 다양한 이민자 집단으로 구성된 까닭에 공동체의 통합과 유지를 중요한 과제로 안고 있는 미국 사회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있음

- 트럼프 열풍으로 미국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근본 가치가 흔들리고 내부적인 분열이 조장되고 있는 상황은 미국 다원주의의 근간을 크게 흔들고 있으며 타협과 통합으로 지탱되어 온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음

V. 한국에의 시사점

- 공화당 후보로 확실시되는 트럼프에 비해 민주당의 클린턴은 지한파이기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보다 수월하고 예측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한국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기를 이미 경험했고, 힐러리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장관으로 오래 봉직했다는 점에서 이미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반면에, 공화당의 트럼프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음
 - 반면 트럼프는 후보경선과정에서 한국에 대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면서 안보에 있어서는 무임승차하는 국가로 매우 부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음

□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 높아질 것

-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누가 되든 간에 현재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ignorance) 정책에 대한 변화가 어떤 형태로든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미국 의회에서 진행된 미국의 대북정책관련 청문회에서는 그간의 대북 정책에 오류에 대한 많은 질책과 회의가 제기된 것으로 보도되며 미국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부각되었음
 - 올 2월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전략적 인내는 (더이상) 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음
 - 이런 이유로,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부소장은 ‘차기 정권에서 북핵 이슈가 어떻게 다뤄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북핵 문제에서 더 이상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음
 -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경우도 오바마 정부 내에서도 비교적 대북 강경론자로 분류되는데, 3월 6일 뉴욕에서의 연설에서 북한을 “러시아 이란과 함께 ‘전통적 위협’”이라고 언급하고, 지난해 출간한 회고록(Hard Choices)

에선 “북한은 기아에 허덕이면서도 빈약한 자원을 핵무기 개발과 이웃과의 대결에 소진하는 정권”이라고 칭함

- 김정은을 향해 “미치광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는 트럼프는 2015년 9월 C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뭔가 보여줘야 할 때”라고 언급하였고, 중국에 압력을 가해 북한 정권을 끝장낼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방하고 있음

□ 미국과의 교역갈등 증가 우려

-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클린턴과 트럼프 중 누가 되더라도 한국에 대한 압박이 지금보다 더 심해지리라 생각됨
 - 다른 무엇보다도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보다 강경한 무역정책을 실시한 것이기 때문임
 - 노동계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클린턴은 과거 국무장관 시절 TPP를 지지했음에도 타결 직후 “미국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바 있음
 - 공화당 후보로 굳어진 트럼프도 비슷하게 “TPP는 미 역사상 최악의 협상”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으며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대외무역 정책에 큰 변화가 올 것임을 단호하게 밝히고 있음
-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예측되는 또다른 변화는 중국에 대한 정책임
 - 줄곧 중국과의 무역정책에 있어서 강경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적당한 외교적 위치를 점하는 데 더욱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됨. 또한 국방예산 감축 문제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더 큰 부담을 한국 정부에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임
 - 미국 중산층 대부분은 미국이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만, 예산의 약 20%를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독일, 일본,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경제 발전으로 부를 축적하면서도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미국 중산층들의 뿌리 깊은 불만을 선거캠페인 전략으로 삼고 있음
- 전통적으로 선거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지지기반으로 갖고 있는 민주당은 보호무역의 입장을 취해 왔고, 공화당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입장을 펼쳐 왔음
 - 이러한 상황은 클린턴 역시 본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강경한 보호무역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재고(再考), 환율과 무역에 있어서의 압력이 배가될 것임을 시사함
- 결국 한국의 입장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문제, 그리고 주한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한국 분담금 증대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무역정책에 대한 압박 역시 이전보다 더 심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여의도연구원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정당 발전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연포커스」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연포커스」의 전문을 www.ydi.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의도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2 기계산업진흥회 신관 3층
전화: (02) 2070-3300 팩스: (02) 2070-3331 (우 07238)